

#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검찰청 출석하며 “제 발로 출석…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 노리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심사가 열릴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신감 피력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올해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국회는 지난 2월 29일 중 찬성 130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풍수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해가며 자신감을 표출한 상황에서, 만일 영장이 가각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면 그 사유에 따라 검찰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 수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전 관계인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일정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 질문에도 진술서 내용을 중심으로 답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 때 진술서로 답을 같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액 산정도 중요 포인트다. 특정법 배임 혐의는 배임 액수가 클수록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도주 우려를 추단한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백

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성남시가 환수하지 못한 이익을 계산 중이다.

유사한 사건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청탁을 받고 민간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준 의혹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인력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뇌물 의혹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수사와 연동됐다는 분석이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게 비슷한 시기에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이 변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 의혹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길이 열린 셈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장 변화 등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부인이 해임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 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 민주 지도부, 김은경 혁신안 여진 지속에 ‘조속히 입장 정리’ 방침

비명계 중심으로 대의원제 개편 반대론 더 커  
당내 의견 수렴 이어가며 수용 여부 판단할 듯  
28~29일 예정된 워크숍서 혁신안 논의 본격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을 놓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해 너무 길게 지속되기보다는 빠르게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내 선거제도나 공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데다 상대적으로 기록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공천 제도에 대해 의원 의견 전수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의원제는 당의 선거제도, 민주주의 방식 등에 관한

문제로 원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당원이 참여해 선출한 당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의원, 대의원, 당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당내 당규에 규정된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룰 변경에 대한 혁신안을 두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대의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당내 공세에 집중할 때”라며 대의원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반대론이 더 컸다.

지도부는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8~29일 예정된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시스

## 민주 이원택 의원, NGO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선 전북 14개 시·군은 물론 전국의 농어촌 상황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부분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회 농해수위·여가위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쌓은 안정과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2023새만금잠버리 준비 부족 지적 등 우수한 성과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국회 파행 바람직하지 않아”

김관영 지사,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와 면담  
“여야 정쟁보다 사실 규명에 집중해야”

김관영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파행된 것과 관련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잠버리 사태 관련 전북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저로 인해 국회가 파행하는 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박 원내대표에게도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는) 지사께서 그리 판단해주셔서 앞으로 여야 협상이나 의사 일정 협상에 참



작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잠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 지사의 출석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먼저 퇴역한 미국과 영국 측으로부터 클레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까지도 고려해 우리가 차분히 진실을 찾는 작업이 훨씬 국익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사원이 전북도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실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는 감사가 됐으면 하고, 목표를 정하거나 희생양 삼는 감사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역주의를 방탄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주의를 방탄에 이용하는 것은 여권”이라며 “잠버리 대회와 전혀 관련 없는 새만금을 끌어들이고 잠버리를 기화로 새만금에 수조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도민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여가부 장관, 잠버리 역할·책임 못해… 조치해야”

국회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정부 사과·잠버리 검증 위한 자료제출 협조 등 요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계 잠버리대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해 파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여가부 장관 인사조치 및 여가부 기능 정상화, 잠버리 검증 위한 자료제출 협조 등을 요구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우려 속에 세계 잠버리 대회가 종료됐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제는 부실 운영과 파행의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제 행사의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며 “어찌 보면 여가부 폐지를 목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잠버리 부실 운영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 임명된 장관이었기에, 예고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영국, 미국 잠버리란의 조기 퇴역 사유는 열악한 위생·음식·폭염대책·의료서비스 문제였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다”고 했다. /뉴시스

연주시민을 위한 희망 콘서트

# 다다락樂

신미정 피아니스트  
안민수 베이스 피리톤

Heinrich Heine | R. Schumann | G. Caccini | F. Fosti | J. Brahms | S. Sondheim | Ennio Morricone | 윤석준

2023. 8. 25(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4만원  
할인 | 조기예매 50% 할인  
12월 15일 입장예매 50% 할인

후원 |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063323-5323